

	게르다 와 하인츠 지은이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Übersetzt von Min-Jung Ramm
	어느날 부터 게르다는 더 이상 인형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인형을 만들었고, 그 인형의 이름을 하인즈 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만든 하인츠는 매우 아름다웠고 심지어 웃을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하인츠를 침대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게르다는 하인츠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그는 거의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그가 그녀의 다리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점심시간에는 그녀의
음식을 모두 먹어 버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그는 그녀에게 “바보
같은 거위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녀는 그를 집에서
내쫓아내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인츠는 다시 한번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끝